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7, pp. 145-154, 2021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7.145

신중년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재취업욕구의 매개효과

황주경[1], 강순희[2*]
[1]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수료, [2]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the New-middle Aged Job Seekers on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 of Re-employment Desire

JooKyoung Hwang[1], SoonHie Kang[2*]
[1]Doctorial Course, Department of Vocationology, Kyonggi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Vocationology, Kyo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신중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재취업욕구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둘째, 재취업욕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위 욕구, 자기실현 욕구, 여가선용 욕구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일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실현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자기실현, 사회적 지위, 여가선용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경력설계 외에 지속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신중년 구직자,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재취업욕구,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new-middle aged job seek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re-employment desire. Fir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therefore it confirmed social support should be expanded to improve new-middle aged life satisfaction. Secondly, the desire for social status, self-realization and leisure utilization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sire for re-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Thirdly, the re-employment desir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ocial network for emotional support continuously after retirement, in addition to career planning for re-employment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retire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the new-middle age.

Key Words : The New-middle Aged Job Seekers,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Re-employment Desire, Mediating Effect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Kyongg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SoonHie Kang(soonhiekang@kgu.ac.kr)

Received June 11, 2021
Revised July 2, 2021
Accepted July 20, 2021
Published July 28, 2021

1. 서론

OECD가 발표한 '2020 삶의 질(How's Life?, 2020)'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삶의 만족도 항목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물론 사회적 관계단절, 정서적 절망 등이 대다수 인구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통계청의 '2019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득은 전 연령대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고연령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낮은 경제활동 참여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2]. 이와 같이 삶의 만족도가 직업과 관련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50대와 60대를 포함하고 있는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와 일과 직업의 문제는 소득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3].

고용노동부(2017)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통해 신중년을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재취업 일자리로, 다음의 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50·60세대로 규정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신중년의 개념은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50·60세대"이다[4]. 기존의 '고령자'나 '노인'이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정책적 용어로써, 신중년 인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15,029천 명이며, 이 중 50세에서 54세가 4,329천 명으로 가장 많고, 65세에서 69세가 2,662천 명으로 가장 적다[5]. 이들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주요 정책은 먼저, 재취업에 관한 정책으로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와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 지정이 있으며, 다음은 창업에 관한 정책으로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에 대한 세대 융합형 운영 지원이 있으며, 귀농·귀어·귀촌과 관련하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체류형 귀어학교 확충, 농어업기술전수 지원사업이 있다[4].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는 2017년 37,572천 명이었으나, 2037년 30,240천 명, 2067년에는 17,842천 명으로 2017년 대비 47.5%의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0천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0천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6]. 이와 같은 생산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최근의 코로나 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소득 불안정을 초래하여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7]. 신중년에게 재취업은 수입을 얻는 경제적 의미와 더불어 사회와의 연결통로이며, 건강 유지와 삶의 보람 등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속히 변화되는 노동시장에서 신중년이 고숙련 노동인구로써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보충하고,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재취업욕구를 살펴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정서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재취업의 과정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 또는 이웃으로부터 친밀감, 관심, 배려와 같은 구체적인 정서적 도움이 필요하다[8,9]. 신중년은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재취업의 과정을 성장과 개선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직업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진로목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중년의 진로전환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재취업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신중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신중년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신중년의 사회적 지지와 재취업욕구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신중년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재취업욕구는 매개하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사회적 지지

Cohen & Hoberman(1983)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하는 긍정적 자원이라고 했으며[10], Kaplan(1977)은 사회적 지지가 소속이나 안정, 애정 등의 욕구가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충족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11]. Barrera(1986)는 삶의 전환

1)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출처:통계청.

기에 적응을 용이 하게 하고, 자긍심을 유지하게 하며, 사회활동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12].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나 소속감 관심, 도움 등과 같은 정서적 도움과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13]. 도차영(2018)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 지원이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고, 개인특성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에 대한 강영숙 외(202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신중년이 처한 상황적 특성에 따른 문제와 스트레스를 낮춰준다고 하였으며, 박현순 외(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정도가 클수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14-16].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겪고 있는 신중년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중년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경력이 끝나거나 줄어드는 과정에 있으며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위한 진로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안 경제활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7]. 따라서 신중년기에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공감대를 갖거나 새로운 사회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중년기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강경란 외(2017)은 신중년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네트워크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물적 자본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18]. 신중년에게 사회적지지는 은퇴 이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진로 준비 행동이나 적극적인 취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19-22], 특히, 신연하 외(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직업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3].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는 생애 전환기에 가질 수 있는 불안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얻는 심리적 지지로 정의하고 여러 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경감 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심리적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2. 재취업욕구

재취업은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취업욕구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직업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24], 신중년은 다양한 상황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구직하고자 하는 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

Havighurst 외(1968)는 사회활동이론(Social activity theory)을 통해 노인세대는 중장년세대와 다름없는 심리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중년기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활동이 노년기까지 지속되었을 때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가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했다[25]. 또한 송성이(2019)는 신중년기의 근로활동이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취업욕구가 수입을 얻기 위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26]. 이와 같은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Adelman(1994)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의 참여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게 되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27].

한편, 한국노동연구원(2015)의 조사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연령은 72세까지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여길수록 퇴직 이후에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8]. 권치영 외(2007)의 연구에서는 신중년에게 일은 소득뿐만 아니라 적절한 활동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고[29], 김덕중(2012)의 연구에서는 신중년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생활만족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재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남순현 외(2014)의 연구에서는 신중년은 일을 통해 소득의 보장과 성취, 건강 유지, 여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나타났다[31].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신중년들에게 재취업을 통한 일은 경제적 소득과 더불어 사회적 참여로 삶의 만족도를 수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중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이나 역할에서 얻은 축적된 능력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길어진 노년기에 대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에 대해 관

심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로 노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신중년에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취업에 대한 욕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재취업 결정요인이나 취업과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17,22,31]. 신중년들이 인지하는 일의 의미와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재취업의 통합적 필요성을 밝히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재취업을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보고 재취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만족에 대한 기대를 재취업욕구로 정의하고 자기실현, 사회적지위, 경제적자립, 여가선용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3. 삶의 만족도

Kalish(1975)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상태로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며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다[32]. Havigurst(1972)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로써 현재의 지위나 활동 등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으로 정의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와 충족에 의해 만족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였다[33]. 현재 삶에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목표나 기대, 관심을 포함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인식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평가는 기쁨이나 성취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나 물질적인 기대와 보상과 같은 욕구충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적 욕구의 충족 정도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될 수 있고, 개인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외부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34]. 이처럼 삶의 만족도는 외부의 영향과 함께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질을 통해 드러난다. 신중년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이들이 느끼는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은 삶의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일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삶의 만족도가 일과 직업에 대한 만족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과 같은 삶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신중년의 일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고, 일을 통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정호(2012)의 연구와 하춘광 외(2009)의 연구에서 중장년의 취업이 성공적인 노화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나타났고[35,36], 유재남(2016)의 연구와 김시월 외(2013)의 연구에서도 취업자의 삶의 만족도가 비취업자의 삶의 만족도 보다 높다고 나타났으며[37,38],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의 연구[37-39] 결과에서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는 소득이나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 참여, 여가 등 사회적 활동 여부, 건강,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 대한 만족한 정도와 같은 인지적· 심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생목표나 욕구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에 종사하고자 하는 50·60세대 가운데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고 일에 대한 생산성이 높고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구직을 하고 있는 50세~64세 구직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40].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 및 수도권 일자리센터와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중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의 내용과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가 포함된 설문지 300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구대상자로부터 회수된 280부 가운데 무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61부를 분석하였다.

3.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5.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Varimax 회전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으며,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재취업욕구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요변인

의 영향력은 위계적 다중회귀를 실시하여 살펴보았으며 유의도 p<.05를 기준으로 하였고, 다섯째, 매개효과는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일반적 특성은 통제변인으로, 명목변수는 Dummy화하여 처리하였다.

3.3. 측정도구

설문 조사는 총 51문항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 사회적 지지 19문항, 재취업욕구 18문항, 삶의 만족도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고, 재취업욕구가 높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3.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유은경 외(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41]. 총 25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5 이하의 불필요한 6문항을 제거하고 19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선행연구와 같이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 및 개별 문항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 모형을 통해 단일요인으로 타당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였다[36]. 선행연구의 신뢰도는 .94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81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3.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측정 도구는 고승덕(1996)의 척도에서 설문 문항을 단일요인 8문항으로 추출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검증한 손덕화(201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42,43].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은 .716~.850으로 분포하며, 선행연구의 신뢰도는 .943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923으로 나타났다.

3.3.3. 재취업욕구

재취업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이병호(201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8]. 재취업욕구는 총20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수는 자기실현 6문항, 사회적지위 5문항, 경제적자립 5문항, 여가선용 4문항이며,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선행연구와 같이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결과에 따라 .5이하 수준에서 자기실현 1문항과, 경제적자립 1문항을 제거하고 자기실현 5문항, 사회적지위 5문항, 경제적자립 4문항, 여가선용 4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8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요인부하량은 자기실현 .718~.805, 사회적지위 .718~.807, 경제적자립 .775~.849, 여가선용 .711~.852로 분포하였다. 선행연구의 문항별 신뢰도는 자기실현 .820, 사회적지위 .850, 경제적자립 .770, 여가선용 .580이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위 .877, 자기실현 .866, 경제적자립 .834, 여가선용 .769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261명으로 남성 158명(60.5%), 여성 103명(39.5%)으로 남성이 다소 많으며, 나이는 50세 이상~54세 이하 86명(33.0%), 55세 이상~59세 이하 90명(34.4%), 60세 이상~64세 이하 85명(32.6%)이며, 학력은대졸 이상 164명(62.8%), 고졸 이하 97명(37.2%)으로 학력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다. 배우자가 있는 참여자 222명(85.1%), 배우자가 없는 참여자 39명(14.9%)으로 대부분은 배우자가 있으며, 부양가족 수는 1명 이하 78명(29.9%), 2명 67명(25.7%), 3명 75명(28.7%), 4명 이상 41명(15.7%)이며, 월평균소득은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11명(42.5%), 400만 원 이상이 86명(33.0%), 200만 원 미만이 64명(24.5%)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261)

Categories		N	%
Gender	Male	158	60.5
	Female	103	39.5
Age(yr)	50~54	86	33.0
	55~59	90	34.4
	60~64	85	32.6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97	37.2
	College ≤	164	62.8
Marital status	Married	222	85.1
	Unmarried	39	14.9
Number of Family	0~1	78	29.9
	2	67	25.7
	3	75	28.7
	4 ≤	41	15.7
Wage(₩)	0~2million 〉	64	24.5
	2million ≤~4million 〈	111	42.5
	4million ≤	86	33.0

4.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기술통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M=3.5680, 표준편차는 SD=.75232이며 재취업욕구에서 자기실현의 평균(M=3.9548)이 가장 높고, 표준편차는 SD=.55576이며, 여가선용 평균은 M=3.5929이며, 표준편차는 SD=.64468, 경제적자립 평균은 M=3.4674, 표준편차 SD=.73406, 사회적지위 평균은 M=3.2697, 표준편차 SD=.72380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평균은 M=3.2778, 표준편차 SD=.75920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Analysis Result of the Descriptive Variables

	N	MIN	MAX	M	SD
Social support	261	1.29	5.00	3.5680	.75232
Self realization	261	2.00	5.00	39548	.55576
Social status	261	1.00	5.00	3.2697	.72380
Economic independence	261	1.25	5.00	3.4674	.73406
Leisure utilization	261	1.25	5.00	3.5929	.64468
Life satisfaction	261	1.00	5.00	3.2778	.75920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8 이상 상관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44]. 결과를 살펴보면 신중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으로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r=.738, p<.01), 재취업욕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실현(r=.607, p<.01)과 사회적지위(r=.559, p<.01), 여가선용(r=.411, p<.01)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자립은 부(-)적 상관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욕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r=-.225, p<.01)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Analysis Result of the Correlations (N=261)

	1	2	3	4	5
Social support					
Self realization	.576**				
Social status	.424**	.564**			
Economic independence	-.179**	.033	-.105		
Leisure utilization	.302**	.361**	.387**	-.036	
Life satisfaction	.738**	.607**	.559**	-.225**	.411**

***p<.001, **p<.01, *p<.05

4.3. 사회적 지지와 재취업욕구의 영향관계

신중년 구직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관계와 재취업욕구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실현은 R^2=.341의 설명력과 F=18.695(p<.001)로 유의미하였고, 사회적 지위는 R^2=.226의 설명력과 F=10.144(p<.001)로 유의미하였고, 경제적 자립은 R^2=.248의 설명력과 F=11.934로 회귀식은 유의미하였으나 변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선용 설명력은 R^2=.137, F=5.98 9(p<.001)로 유의미하였고,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자기실현 욕구(β=.553), 사회적지위 욕구(β=.342), 여가선용(β=.256)의 순으로 나타나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에 자기실현 재취업욕구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기실현을 위한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

〈모형 2〉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R^2=.531의 설명력과 F=28.286(p<.001)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재취업욕구의 하위요인만을 투입했을 때 설명력은 R^2=.589, F=28.099(p<.001)로 유의미하였다. 상대적 영향력은 자기실현(β=.379), 사회적지위(β=.215), 여가선용(β=.147), 경제적자립(β=-.164)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자립 욕구는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4.5. 재취업욕구의 매개효과

〈모형 3〉에서 삶의 만족도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이 재취업욕구에 의해 매개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재취업욕구의 하위변인에 대한 β값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자기실현은 2단계 β=.379에서 3단계 β=.165로 감소하였고, 사회적지위는 2단계 β=.215에서 3단계 β=.191로 감소하였고, 여가선용은 2단계 β=.147에서 3단계 β=.116로 감소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재취업욕구의 하위요인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자립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Table 4. Analysis Resul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Re-employment Desire(N=261)

Variable	Model 1 B		Model 1 C		Model 1 D		Model 1 E		Model 2 F		Model 3 G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A	.409	.553***	.329	.342***	.008	.008	.219	.256***	.683	.677***	.496	.491***
B									.518	.379***	.226	.165**
C									.225	.215***	.201	.191***
D									-.170	-.164***	-.126	-.122**
E									.173	.147**	.136	.116**
A, B											.356	.260***
A, C											.300	.286***
A, D											-.078	-.076
A, E											.228	.194***
D-W	1.972		1.879		2.089		1.803		2.008		2.055	
R^2	.341		.219		.248		.137		.531		.664	
F	18.695		10.144		11.934		5.989		28.286		44.805	
sobel test	B	4.692***, p=.000										
	C	4.193***, p=.000										
	E	2.914**, p=.003										

A: Social support, B: Self realization, C: Social status, D: Economic Independence, E: Leisure utilization, F: Life satisfaction
Male=0,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0, Marital status=0, Wage = log, ***p<.001, **p<.01, *p<.05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sobel test의 경우 결과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45]. sobel test 결과 값은 자기실현이 4.692(p<.001)로 유의미하고, 사회적지위가 4.193(p<.001)으로 유의미하며, 여가선용이 2.914(p<.01)로 유의미하여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신중년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에 재취업욕구가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고, 신중년이 일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중년 구직자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재취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에 참여하여 심리적 보상을 받게 하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문제점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다[18,19,46]. 김형민 외(2015)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을 건강한 사회참여의 존재로 보고 정서적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인이며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47]. 신중년 구직자들이 재취업 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고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기대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로 방향을 모색하는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연구로써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자기실현과 사회적지위, 여가선용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자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실현, 사회적지위, 여가선용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적자립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자립 욕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경제적 자립 욕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덜 인식한다는 것은 현재의 소득이 경제적욕구를 일정부분 충족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는 중고령자 재취업결정요인 분석결과 비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효과로 인해 취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강순희(2016)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48]. 경제활동이 전 연령대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연령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된 기존의 연구와 같다[3,47]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신중년 구직자의 재취업욕구의 상대적 영향력이 자기실현(β=.553), 사회적지위(β=.342), 여가선용(β=.256)의 순으로 나타나 일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느끼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유가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29].

셋째, 사회적 지지는 재취업욕구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49]. 강순희(2016)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재취업을 하더라도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질과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면서 일자리의 부족과 재취업 지원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48]. 이 같은 결과는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 뿐만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본 연구를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년의 사회적 지지와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가운데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재취업을 통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직하는 동안 체계적인 생애전환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신중년의 재취업은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의미 있는 존재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년기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 욕구에 맞는 경력설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중년기에는 신체적 노화나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여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신중년기를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전략과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정책적 지원을 확충하여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와 일의 만족을 통한 삶의 질을 올리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50대 구직자가 많고,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으며, 일정 시점에서 조사되어 전체 신중년 구직자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직업별 계층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OECD. (2020). *How's Life?*(Online).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2] KOSIS. (2020). *2019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Seoul : KIPA. (Online). https://www.kipa.re.kr

[3] OECD. (2020). *ECONOMIC REVIEW OF KOREA*. (Online).*www.oecd.org/eco/surveys/*economic-survey-korea.htm

[4] Employment and Labor. (2017). *Now in the New-middle aged*. Seoul : KEIS. (Online). http://www.moel.go.kr

[5] KOSOS. (2020).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Online). *https://kosis.kr/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

[6] KOSIS. (2019). *Estimates of future population*(Online). https://kosis.kr/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

[7] H. J. Lee & T. Y. Han. (2014). Proactive Career Behavior of Middle-aged Worker for Post-retirement Career.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7(1)*, 221-248.

[8] B. H. Lee. (2013). *Effect of a Desire for Re-employment of the Middle and Old-aged Unemployed on Career Path Development Volition*. Master's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eoul.

[9] J. O. No. (2004). *General and employment-related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Master's dissertation.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10] S. Cohen. & H. M. Hoberman.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11] B. H. Kaplan, J. C. Cassel & S. Core. (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 47-48.

[12] M. Barrera.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4)*, 413-445.

[13] M. R. Kim. (2005). The Theory of a Conceptual Definition an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the Methodological Issues of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2(1),* 99-121.

[14] C. Y. Do. (2018). *Effect of social support, ego resilience and job-seeking self-efficacy of the prime and middle-aged on employment*

preparation action.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5] Y. S. Kang & J. Y. Jung. (2020).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 and Social Suppor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PJBV, 15(1),* 259-268.

[16] H. S. Park. & D. S. Ra. (200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rkers - Focus on the Empowerment as a Mediator.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0*, 147-172.

[17] S. A. Kim, H. S. Jung. (2019).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Factors by Age Group and Policy Tasks. *Health and Welfare Forum , 270*, 95-104.

[18] G. L. Kang & C. W. Park. (2017). The Effects of Career Orientation on the Entrepreneurial· Reemployment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ocial Capitals. *APJBV, 12(5),* 177-189.

[19] E. K. Bae, D. Y. Kim, Y. J. Lee & S. H. Kang. (2020).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areer Planning on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Downward Employment Intention, and Active Job Seeking Behavior of Career Discontinued Women. *Andragogy Today, 23(1),* 1-29

[20] S. J. Lee. (2019).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Career-interrupted Wome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 on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4(12).*

[21] E. S. Kim & Y. C. Kim. (2019). A Study on the Preparations for aging action of Middle-Ages. *9(11),* 879-891.

[22] S. J. Shin. & I. H. Lee. (2018).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Support, Career Capabil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for the Reemployment Women,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8),* 422-432.

[23] Y. H. Shin & D. Y. Lee. (2017).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Re-employment Need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Career Interrupted Woman. *Journal of the Korea Creative Content Association, 17(9),* 310-323.

[24] I. H. Baek. (2016). *An Analysis on Job-searching Determinants of Career-interrupted Female Baby boomers*.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5] R. J. Havighurst, B. L. Neugarten & S. S. Tobin. (1968). Disengagement Pattern of Aging. In B. L. Neugarten(Ed), *Middle Aged & Aging*, 160-175.

[26] S. Y. Song. (2009). *Comparative analysis of desire for re-employment classified by the type of the occupation re-entry of middle-elderly aged & future time perspective.* Master's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eoul.

[27] P. K. Adelmann. (1994). Multiple roles'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ervice, 49(6)*, 277-285.

[28] KOREA LABOR INSTITUT. (2015).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29] C. Y. Kwon, S. W. Kim, J. C. Im & H. I. Lee (2007). Effects of Work Participation on the Self-esteem of the Elderly. *Old Korean Studies, 27(2),* 427-443.

[30] D. J. Kim. (2012).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Health Status,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Physical Activity Participants in Middle Age.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47*, 503-518,

[31] S. H. Nam & M. H. Kim. (2014). The Influences of a Leisure Lifestyle, Retirement Preparation, and Leisure Activities with a Spous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s. *Old Korean Studies, 34(1).*

[32] R. A. Kalish. (1975). *Late adulthood : Perspective on human development Berkele*. CA : Cole Publishing Co.

[33]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kes and Education*, NY: David Mckay Co.

[34] H. Y. Park. (200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Recruitmen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Master's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35] J. H. Park. (2012).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and Productive Activities of the Working Elderly on Successful Aging: Focused on Interaction Effect of Productive Activities. *Social Welfare Policy, 39(4),* 59-81.

[36] C. K. Ha & H. S. Kim. (2009). Elderly Job Projects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Social Welfare Policy, 36(4),* 393-414.

[37] Y. J. Nam. (2019).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s. *Social welfare in Korea, 69*, 183-200.

[38] S. W. Kim & H. S. Cho. (2013). The Impact of Financial Condi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Korean Baby Boomers - Comparison between employed and non-employed Baby Boomers -.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33.

[39] S. W. Hong, M. H. Jeung & S. K. Yoo. (2016). Factors that Influence Life Satisfaction of Retirees Living in the Community. *Korea Association Of Community Welfare Studies*, *56,* 139-162.

[40] E. J. Jang. (2017). *Effect of Aging Awareness and Health of Middle-Ag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41] E. K. Yu & H. S. Seol. (2015). Factorial Structure of the Social Support Scale. *Suryey research, 16(1)*, 155-184.

[42] S. D. Ko, (1995). *An Analyt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43] D. H. Son. (2017). A Study on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on-Retiring Baby Boomers' Preparation for Old Age. *Psycho-Social Factors and Satisfaction with Life*, *42(2),* 167-183.

[44] R. R. Hocking & O. J. Pendleton. (1983). The regression dilemma. *Communications in Statistics -Theory and Methods*, *12(5),* 497-527.

[45]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lology, 51(6),* 1173-1182

[46] N. R. Bae & C. S. Park. (2009).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761-779.

[47] H. M. Kim & D. H. Kim. (2015).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 on the Quality of Life by Baby Bomm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4(4)*, 89-100.

[48] S. H. Kang. (2016). A Study on Reemployment Determinants, *Job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of the Aged, 3(15),* 112-165.

[49] N. H. Kim & H. M. Bang. (2019). A Study on the Structure Model of Middle-aged and Elderly's. *HSS21, 10(5),* 1265-1280.

황 주 경(JooKyoung Hwang) [정회원]

· 2020년 8월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신중년, 전직지원
· E-Mail : 522joo@hanmail.net

강 순 희(SoonHie Kang) [정회원]

· 2012년 2월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동시장, 고용정책
· E-Mail : soonhiekang@kgu.ac.kr